



살아나는
친수공간,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도시 하천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들이 확산되고 있다. 한때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무분별하게 복개되고, 오·폐수로 방치되던 도시 하천에 '생명의 기운'이 움트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사업이 하천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경관과 친수성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협회지 기획특집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도시 하천복원사업의 실태와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하천복원사업의 긍정적인 부분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국내·외 하천복원사업의 성공 사례에 대해 알아본다.



‘죽음의 하천’에서 ‘생명의 하천’으로

글 : 안홍규 _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지난 1990년대 이후 독일과 일본으로부터 '자연형 하천복원'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도시의 중소 하천을 대상으로 하천의 환경기능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이에 국내에서도 '자연형 하천복원',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로 불리다가 현재는 사회적 요구에 의하여 하천을 자연에 가깝게 조성한다는 근본적인 목적으로 '생태하천복원'이라는 이름으로 지칭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하천복원이란 치수(治水)나 기타 다른 목적의 하천사업이나 불량한 유역관리에 의해 훼손

된 하천의 생물서식처, 자정, 경관과 친수성 등 환경적 기능을 되살리기 위하여 하도와 하천변을 원래의 자연 상태에 가깝도록 되돌리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도시 하천복원사업의 실태

그러나 그간 국내에서 이루어진 하천복원사업을 살펴보면, 우리의 현실상 자연형 하천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우리의 하천복원사업은 주로 경관과 친수성에 치중해 이루어져 왔기에 실제



하천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들을 위한 하천조성은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인으로서는 몇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로 '지역 주민들의 요구'라고 할 수 있다. 하천의 생태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간섭이 최대한으로 배제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도심구간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배제는 용납될 수 없고, 따라서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하천을 조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도심의 하천조성은 경관과 친수성이 우선되며 최소한의 생태만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

둘째로, 도심하천에서는 이미 조성된 제한된 하천부지 내(제방과 제방사이)에서만 복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한된 공간 내에서 홍수방어를 위한 통수단면적의 확보, 오염수 배출을 위한 차집관로의 설치, 시민이용을 위한 친수시설과 더불어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생물서식처 등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성하여야 하는데, 도심하천에서는 그 공간이 매우 협소하다.

셋째로, 하천복원과 관련된 기술력이 매우 미약하다는 점이다. 외국에 비해 국내의 하천복원사업의 역사는 불과 10여 년으로 매우 짧고 그 기술력 역시 얇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 조성되고 있는 자연형 하천복원은 매우 한정된 기술(공법)로 조성하고 저수호안을 고착(고정)화시킴으로써 하천생물들을 위한 생태하천이라기 보다는 또 다른 인공하천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시민들에게 돌아온 친수공간으로서의 하천

그러나 이러한 제한된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연형 하천복원을 통하여 오염과 악취로 접근하기를 꺼려하던 하천 공간을 시민에게 다시 되돌려 주었고, 다양한 수질정화를 통하여 죽어가던 하천에 새 생명을 불어 넣어주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의 하천복원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첫째, 기존의 하천복원이 저수호안에 의존한 선적인 개념의 복원이라면, 앞으로는 친수기능을 확보하면서 공간적 개념인 홍수터의 보전 및 복원이 될 것이다. 둘째, 기존의 하천복원이 치수 및 친수에 치중한 하천복원이었다면, 향후에는 자연과 함께하는 하천조성을 위하여 생물서식처의 복원을 중시한 하천복원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하천복원에서는 누락되었던 하천복원을 통한 경제성 분석과 하천복원의 우선순위 결정에 의한 하천복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한 분야만의 집중적인 조성이 이루어질 수 없고, 토목·조경·생물·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올바른 하천복원을 이루기 어렵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 실패 없는 성공은 더 큰 발전을 이루지 못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며,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하천조성을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투자하여야 할 것이다. ☺

[국내 하천복원의 효시라 할 수 있는 양재천의 자연형 하천복원]



하천복원전(1997년)



하천복원 직 후(1999년)



하천복원 3년경과(2002년)